

# 한국어판 WHO-CIDI(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사회공포증의 개발 :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서주원\*\* · 오강섭\*\*\* · 이시형\*\*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CIDI(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Social Phobia :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Joo-Won Seo, M.D.,\*\* Kang-Seob Oh, M.D.,\*\*\* Si-hyung Lee, M.D.\*\*

### 국문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판 CIDI(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 사회공포증의 타당도,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방 법 :

DSM-IV 진단기준에 의하여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을 실시하여 임상진단과의 일치도를 보았고 이중 20명에 대하여서는 두 명의 면담자가 각각 실시하여 면담자간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 결 과 :

50명에 대한 임상진단과 일치도를 통한 타당도는 0.74로 나타났으며 두 명의 면담자간 일치도를 통한 신뢰도(kappa)는 0.75로 나타났다.

#### 결 론 :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은 높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인구 및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공포증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도구로 판명되었다.

**중심 단어 :** 사회공포증 ·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 · 타당도 · 신뢰도.

## 서 론

정신과 질환의 진단에 있어 진단적 일치도를 높이기

\*본 연구는 1999년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Sun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위한 진단기준에 대한 표준화의 노력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각각의 진단 범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제시한 Research Diagnostic Criteria<sup>1)</sup> Feighner's Criteria<sup>2)</sup> 및 이를 기초로 미국정신의학회의 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등이 현재 진단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진단기준에

따라 정보에 대한 변인을 줄이기 위하여 Feighner Criteria에 따른 Renard Diagnostic interview<sup>3)</sup>, RDC에 따른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 Schizophrenia<sup>4)</sup>, Feighner Criteria, RDC, DSM-III에 따른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sup>5)</sup>등의 구조화된 면담도구들이 개발되어 현재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면담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개의 구조화된 면담도구중의 하나인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CIDI)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신 질환에 있어 치료 및 연구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진단체계인 DSM-III-R 및 ICD-10에 따라 종합적으로 구조화된 진단용 면접도구로서 세계보건 기구(WHO)와 Alcohol Drugs Abuse Mental Health Administration(ADMHA)의 후원아래 개발되어 역학연구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6)</sup>.

CIDI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제공자의 자가 보고형식, 임상증상에 관한 질문의 표준화된 방식, 임상증상에 대한 심층 조사 질문의 사용, 증상 및 진단에 관한 첫 발병 및 마지막 발병시기 평가와 관련된 시점과 연관된 질문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관성과 임상 진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간의 효율성 및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표준화된 면담은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한되는 현실에서 일반면담자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CIDI가 개발된 이후로 주요한 세 가지 개정판이 나와있는데 첫째로 computerized CIDI(CIDI-AUTO), University of Michigan version(UM-CIDI), the Primary Care version(CIDI-PMC)등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연구 및 임상에 이용하기 위하여 번역판을 개발 일부 이미 사용 중에 있다.

사회공포증은 일반적 혹은 특수한 경우의 사회 상황에서 남들이 주시할 경우 자신이 당황해 하거나 창피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보이며 이러한 불안은 심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회피 및 예기 불안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이다<sup>7)</sup>.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강북삼성병원(구 고려병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포증에 대

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공포증에 대한 역학 및 임상연구에서 진단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는 진단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역학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정균(1986)<sup>8)</sup>등은 DIS-III(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version 3)를 이용하여 한국 정신장애에 대한 역학연구에서 사회공포증에 관하여 도시지역에서는 0.51% 농촌이 0.56%의 평생 유병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심성상 사회공포증은 국내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병에 대한 편견, 인식부족, 특히 사회공포증에 대한 일반인 및 정신의학자의 관심결여 등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단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는 UM-CIDI 2.1 version을 일부 번역하였고 이중에서 사회공포증에 대한 한국어판 CIDI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시기

99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원 외래를 방문하여 DSM-IV 진단기준에 따라 2명의 전문의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20명에 대하여서는 면담시간 일치도를 얻기 위하여 두 번 실시하였다. 면담자는 2명의 전공의가 사회공포증에 대한 임상양상 및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의 목적, 구조 및 면담방법에 대하여 교육받고 서로에게 연습면담을 시행하여 면접방법을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이후 환자 군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 2. CIDI의 형식 및 내용

CIDI는 DSM-IV의 진단 중 56개의 진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진단에 대한 문항을 예, 아니오 형식의 폐쇄 질문의 형태로 작성하여 면담자에 의한 해석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각 문항에 있어 양성으로 나온 경우 심층 질문을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손상,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을 측정하여 정보에 의한 편견을 최소화 하려 하였다. 각 진단에 있어 증상에 대하여 발병시기, 지속 기간, 마지막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진단에 대한 시간적인 판단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아니오, 예란 대답에 대하여 1, 5로 도구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algorithm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게 하였다.

### 3. 한국어판 CIDI의 개발

본원 정신과전문의 3명과 전공의 2명 삼성 사회정신건강 연구소의 임상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연구팀의 주도하에 문헌 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언어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UM-CIDI 2.1 version.을 초기번역과 역번역을 통하여 한국어판 CIDI를 개발하였다. 특정공포, 사회공포, 공황장애, 광장공포, 범불안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주요우울증, 감정부전장애, 양극성장애, 순환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동 및 불안장애가 한국어판 CIDI에 포함되었다.

사회공포증에 대한 질문 문항은 불안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문항,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에 대한 문항,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에 대한 문항, 불안으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항진 증상 및 인지 왜곡에 대한 문항, 가해의식에 대한 문항 및 발생 시기, 마지막 경험시기, 지속 기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4. 자료 분석

환자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 면담자간 일치도를 통하여 면담자간 신뢰도를 조사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임상진단과의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을 통한 진단결과간의 일치도를 통해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 결 과

#### 1. 대상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DSM-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전문의 2명에 의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된 대상군 50명에 대한 성비는 남자가 36명(72%), 여자가 14명(28%)이었으며 평균나이가 29.04±8.17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별로 보면 19세 미만은 8명(16%), 20대가 23명(36%), 30대가 16명(32%) 40대가 5명(10%)으로 20대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이나 동거중인 사람이 16명(32%), 미

혼이 33명(66%), 별거가 1명(2%)으로 미혼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업유무에 대하여서는 학생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0명(80%), 무직인 경우가 10명(20%)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에 대하여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1명(2%), 고등학교 졸업 및 재학중인 경우가 20명(40%), 대학교 졸업 및 재학중인 경우가 27명(54%),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2명(4%)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임상진단과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의 진단간의 일치도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을 실시한 경우 임상진단에서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한 50명중 37명을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하여 임상진단과의 일치도는 0.74로 나타났다.

#### 3.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을 이용한 사회공포증의 면담자간 진단 일치도

사회공포증에 대한 면담자간 진단 일치도 및 kap-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                             | N(%)       |
|-----------------------------|------------|
| Sex                         |            |
| Male                        | 36(72)     |
| Female                      | 14(28)     |
| Age                         |            |
| Mean±SD                     | 29.04±8.17 |
| ≤19                         | 8(16)      |
| 20-29                       | 23(46)     |
| 30-39                       | 16(32)     |
| 40-50                       | 5(10)      |
| Marital status              |            |
| Married                     | 16(32)     |
| Single                      | 33(66)     |
| Separated                   | 1(2)       |
| Education(years)            |            |
| ≤6                          | 1(2)       |
| 7-9                         | 0(0)       |
| 10-12                       | 20(40)     |
| 13-16                       | 27(54)     |
| ≥16                         | 1(2)       |
| Occupation(present)         |            |
| Employed(excluding student) | 40(80)     |
| Unemployed                  | 10(20)     |

**Table 2.** Diagnostic concordance between two interviewers

| A Interviewer \ B Interviewer | Diagnosis positive | Diagnosis negative | Sum |
|-------------------------------|--------------------|--------------------|-----|
| Diagnosis positive            | 12                 | 3                  | 15  |
| Diagnosis negative            | 2                  | 3                  | 5   |
| Sum                           | 14                 | 6                  |     |

pa치는 75%(k=0.75)로 나타났다(Table 2).

## 고 찰

임상의의 진단 과정에서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변인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해 왔다.<sup>9,10)</sup> 첫째 정신병리학적인 증상을 묻기 위한 질문, 둘째 환자가 제공하는 증상에 대한 정보, 셋째 임상적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적 연관성, 넷째 정보에 대한 해석, 다섯째 진단체계에 따른 진단기준의 해석, 여섯째 부호화(coding)의 정확도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무작위 실수(random error)등이다. 이러한 변인을 줄이기 위하여 표준화가 잘된 면담도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번역을 통한 국내에서의 사용은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목적은 사회공포증에 대한 진단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일반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유병율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CIDI중에서 사회공포증에 대한 임상진단과의 일치도 및 면담자간 진단 일치도를 통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한 것이다.

외국에서 CIDI를 이용한 사회공포증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Wacker 등(1991)<sup>11)</sup>은 일반 인구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일치도가 0.65로 보고하였으며 Janca 등(1992)<sup>12,13)</sup>은 일반 면담자와 임상가가 면담을 관찰하면서 ICD-10 check list를 작성하여 CIDI 진단과 ICD-10에 의한 임상진단과의 일치도를 통한 불안 및 공포장애에 대한 진단 일치도에서 0.73의 일치도를 보고하여 우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Wittchen 등(1996)<sup>14)</sup>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있어 0.47,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II-R(SCID)와의 절차신뢰도(procedural validity)는 0.62로 보고하였는데 낮은 신뢰도

에 대하여서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이차 검사시기를 16개월에서 34개월까지 길게 설정한 것을 제한점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면담자간 진단의 kappa수치는 0.75로 외국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왔으며 임상진단과의 일치도를 통한 타당도는 0.74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신뢰도 연구에서 kappa수치가 0.7이상일 경우 좋은 일치율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검사도구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상군인 50명중 임상진단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인 13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봤을 때 6명의 환자에서 증상이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혹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한 문제인지 혹은 다른 내과적 질환에 의한 문제인지 등에 대한 심층조사 질문을 하였을 경우 응답자가 증상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심하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도 거의 먹지 않았는데 해당하는 문항인 "증상이 경미하여 의사의 진료경험 없음"에 표시되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는 환자가 질문에 대하여서 본원에 오기 전에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일치도의 저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향후 면담자에 대한 교육 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CIDI의 면담에 있어 비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면담에 있어 2명의 정신과 전공의가 시행함에 있어 정보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임상가와 일반 면담원이 실시했을 경우에서의 차이를 봤을 때<sup>15)</sup>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러한 제한점은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일반 면담원에 대한 검사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로 면담자간 신뢰도만 측정되었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대하여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로 타당도 검증에 있어 임상가의 진단과 일치도를 봤는데 사회공포증에 대하여 다른 구조화된 진단도구를 비교하여 타당도를 측정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사회공포증의 진단에 대한 구조화된 면담도구가 부족하여 이를 실시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사회공포증의 진단을 위하여 UM-CIDI 2.1 version 을 선택하여 사회공포증에 관하여 임상진단과의 일치도 및 변답자간 일치도를 구하여 한국어판 CIDI-사회공포증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각 0.74, 0.75로 나타나 검사도구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

## REFERENCES

- 1) Spitzer RL, Endicott J, Robins E(1975) :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New York, Biometrics Research Division,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2) Feighner JP, Robins E, Guze SB, Woodruff RA Jr, Winokur G, Munoz R(1972) : Diagnostic criteria for use in psychiatric research. Arch Gen Psychiatry 26 : 57-63
- 3) Heltzer JE, Robins LN, Croughan JL, Welner A (1981) : Renard Diagnostic Interview-its Reliability and procedural Validity with Physician and Lay Interviewers. Arch Gen Psychiatry 38 : 393-398
- 4) Endicott J, Spitzer RL(1978) : A Diagnostic Interview : the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 Arch Gen Psychiatry 35 : 837-844
- 5) Robins LN, Heltzer JE, Croughan JL, Ratcliff KS (1981)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Diagnostic Interview Schedule-Its History, Characteristics, and Validity. Arch Gen Psychiatry 38 : 381-389
- 6) Wittchen H-U(1994) :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of the WHO-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CIDI). A critical review. J Psychiatr at Rex 28 : 57-84
- 7) 이시형(1993) : 대인공포. 서울, 일조각, pp1-4
- 8) 이정균, 광영숙, 이 희, 이용식, 이영호, 한진희 (1986) : 한국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I) - 도시 및 시골지역의 평생 유병율. 서울의대정신의학 (부록) 11 : 121-141
- 9) Splitzer R, Fleiss JR(1974) : A reanalysis of psychiatry diagnosis. Br J Psychiatry 125 : 341-347
- 10) Heltzer JE(1983) : Standardized interviews in psychiatry. Psychiartric Developments 2 : 161-178
- 11) Wacker HR, Mullejons R, Klein KH, Battagay R (1992) : Identification of cases od anxiety disorders and affective disorders in the community according to ICD-10 and DSM-III-R by using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CIDI).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2(2) : 91-100
- 12) Janca A, Robins LN, Cottler LB, Early TS(1992a) : Clinical Observation of Assessment Using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CIDI). An analysis of the CIDI field trials-wave II at the St. Louis site. Br J Psychiatry 160 : 815-818
- 13) Janca A, Robins LN, Bucholz KK, Early TS, Shayka JJ(1992b) : Comparison of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and clinical DSM-III-R criteria checklist diagnosi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5 : 440-443
- 14) Wittchen HU, Zhao S, Abelson JM, Abelson JL, Kessler RC(1996) : Reliability and Procedural Validity of UM-CIDI DSM-III-R Phobic Disorders. Psychol Med 26(6) : 1169-1177
- 15) Wittchen HU, Robins LN, Cottler L, Sartorius N, Burke J, Regier D(1991) : Cross-cultural feasibility, reliability and sources of variance of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CIDI). Results of the multicenter WHO/ADAMHA Field Trials(wave I). Br J Psychiatry 159 : 645-653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CIDI(Composite International Dignostic Interview)-Social Phobia :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Joo-Won Seo, M.D., Kang-Seob Oh, M.D., Si-hyung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un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O**bjectives : It is our purpose to evaluate the validity & interrater reliability of CIDI-social phobia, Korean Version.

**Method** : CIDI-Social phobia Korean Version was evaluated by 50 Korean social phobia patients who met diagnostic criteria of DSM-IV. The authors calculated diagnostic concordance rate between clinical diagnosis & diagnosis by using the CIDI-social phobia Korean Version for evaluating validity. We also calculated the interrater diagnostic concordance of 20 social phobia patients for evaluating interrater reliability.

**Results** : Validity of the CIDI-social phobia Korean Version was 0.74, & Interrater reliability (kappa) was 0.75.

**Conclusions** : CIDI-Social phobia, Korean version had a good reliability & validity. That was proved a good instrument for diagnosing social phobia for general population and clinical patients

**KEY WORDS** : Social phobia · CIDI-social phobia · Korean version · Reliability · Validity.

---



**【면접원】 심층 조사를 하시오.**

(심층 조사(PRB)의 기준)

- 2: 증상이 경미하여 의사의 진료 경험 없음
- 3: 항상 약물 또는 알콜에 의해 생긴 증상이었음
- 4: 항상 신체적 질병 또는 외상에 의한 증상이었음
- 5: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

의사 진단 또는 의견: \_\_\_\_\_, 기타: \_\_\_\_\_

**【면접원】 그러나 언어장애, 신체질환에 의한 떨림, 식이장애등과 관련된 공포는 4로 심층 조사를 표기하십시오.**

---

4.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나타내거나 혹은 창피 당할 일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주목을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오-----1  
 예-----5

---

5.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목을 받는 상황을 다른 사람에 비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오-----1  
 예-----5

A.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1  
 예-----5

B.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을 두려워 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까?  
 아니오-----1  
 예-----5

**C. 【면접원】 만일, 응답자가 18세 미만이라면 C를 질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으로 가시오.**

당신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했던 가장 긴 기간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_\_\_\_\_ 개월

---

6.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생활, 혹은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까?  
 아니오, 많지 않음----1  
 예, 많음-----5

---

7.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목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대개 매우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습니까?  
 아니오-----1  
 예-----5

---

8.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에 있거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_\_\_\_\_

1)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떨렸습니까?  
 아니오      예  
 1            5



|  |   |   |
|--|---|---|
| 2) 속이 메스껍거나 배속이 불편하거나 혹은 토할 것 같았습니까?                     | 1 | 5 |
| 3) 무의식중에 소변 혹은 대변을 싸게 될까봐 두려웠습니까?                        | 1 | 5 |
| 4) 지나치게 긴장할까봐 두려웠습니까?                                    | 1 | 5 |
| 5)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을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6) 식은 땀이 날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7) 얼굴이 굳어지거나 표정이 부자연스러울까봐 두려웠습니까?                        | 1 | 5 |
| 8) 내 몸이나 태도, 걸음걸이 등이 어색할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9) 실수나 실언을 할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10) 어색한 웃음을 보일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11)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까?                                | 1 | 5 |
| 12) 상대방의 시선을 불편하게 느꼈습니까?                                 | 1 | 5 |
| 13) 옆사람이 의식되고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까?                    | 1 | 5 |
| 14) 자기 시선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까?(노려보는 것 같다, 공격적 이다, 추파를 던는 것 같다) | 1 | 5 |
| 15) 남의 특정 신체부위(성기, 흉터)로 시선이 갈까봐 두려웠습니까?                  | 1 | 5 |
| 16) 침 삼키는 소리가 나거나 숨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17) 배에서 나는 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봐 두려웠습니까?                         | 1 | 5 |
| 18) 자신의 외모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느꼈습니까?                             | 1 | 5 |

A. 카드의 아래 부분을 보십시오. 당신은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에 있거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의 증상이 있었습니까?

**【면점원】 1번부터 13번까지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두 개 항목에서 5에 표시되면 8-B로 가시오

|  | <u>아니오</u> | <u>예</u> |
|--|------------|----------|
| 1)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까?                              | 1          | 5        |
| 2) 식은땀이 났습니까?                                      | 1          | 5        |
| 3)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렸습니까?                                | 1          | 5        |
| 4) 입이 말랐습니까?                                       | 1          | 5        |
| 5) 숨이 가빴습니까?                                       | 1          | 5        |
| 6) 질식할 것 같았습니까?                                    | 1          | 5        |
| 7) 가슴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 1          | 5        |
| 8)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았습니까?                              | 1          | 5        |
| 9) 당신 자신이나 주변의 일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 1          | 5        |
| 10) 자신을 조절할 수 없거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의식을 잃을까 두려웠습니까? | 1          | 5        |
| 11) 죽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까?                                | 1          | 5        |
| 12) 열이 나거나 오한이 났습니까?                               | 1          | 5        |
| 13) 감각이 없거나 저린 느낌이 있었습니까?                          | 1          | 5        |

B. 위의 증상들 중(8의 1)~18))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하나만 골라 번호를 적으시오) \_\_\_\_\_

C. 위의 증상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예  
1(9로 가시오) 5

D. 만일, 나쁜 영향을 준다면, 아니오 예

|   |   |   |
|---|---|---|
| 1) 나의 증상으로 인하여 상대를 다소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 1 | 5 |
| 2) 나의 증상으로 인하여 분명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 1 | 5 |
| 3) 나의 증상이 상대에게 전염되어 상대에게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 1 | 5 |
| 4) 나의 증상으로 인해 타인들이 나를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 | 1 | 5 |
| 5) 나의 증상으로 인해 타인들이 나를 기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1 | 5 |

9. 최초 :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였습니까? 최초 : 1 2 3 4 5 6  
최초발병연령 : \_\_\_\_\_

최근 :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문카드에 동그라미 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였습니까? 최초 : 1 2 3 4 5 6  
최초발병연령 : \_\_\_\_\_

- (1 : 최근 2주 이내,
- 2 : 2주이상~1개월 미만,
- 3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4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 : 지난 12개월 이내이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6 : 1년이상)

10. 당신은 위의 기간동안(최초경험과 최근경험 사이에도) 변함없이 설문카드에 동그라미친 상황과 같이 남의 주시를 받는 상황에 있거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매우 두려워하거나 피했습니까? 아니오-----1  
예-----5

■ 설문카드

1.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먹거나 마시는 것
2. 할 말이 없거나 바보처럼 보일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3. 누군가 보고 있을 때 글씨를 쓰는 것
4. 회의나 학급에서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것
5. 잔치 또는 모임에 가는 것
6. 여러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연설하는 것